

시설 보호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 성향 및 학교 적응*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Care Teac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권기남
교수 유안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아동학과
전임강사 민하영

Dept. of Child & Family, Seoul National Univ.

Doctor's Course : Kwon, Ki-Nam

Professor : Yoo, An-Jin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Full-time Instructor : Min, Ha-Yeoung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care teacher(institution staff),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is also examined the differen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by gender and the duration in the institution. Participants were 119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58 boys, 61 girls).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care teac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were measured by self-report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in SPSS Win program, by Cronbach's α , T-test, Pearson Correlations, Simple Regress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s expected, results confirm that

* 이 연구는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perceived social support was associated positively with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Further, perceived social support also exerts indirec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internal locus of control. However, none of these variables differed by gender and the duration in the institution.

주제어(Key Words): 시설 보호 아동(institutionalized children), 지각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care teacher), 내적 통제 성향(internal locus of control), 학교 적응(school adjustment)

I. 문제 제기

신체적 발육상태가 빠른 요즘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어도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겪는 등 이미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유안진, 1999: 361).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변화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많은 발달 전문가들이 이 시기의 아동들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아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조망,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기대, 개인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발달 및 적응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비단 발달 단계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 및 취약한 제반 환경의 위협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발달 및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크리라 예상된다. 실제로 가정 불화로 인한 부모의 이혼, 부모 부재 등 아동기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이적인 사건의 경험이 이후의 행동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rintz, Shermis, & Webb, 1999). 또한 빈곤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은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인 발달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행동 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Kleanov, Liaw, & Duncan, 1995).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장을 통해서 시설 보호 아동의 발달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는 학업성취와 같은 지적인 발

달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발달 및 적응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인 곳으로 보고되었다(박현선, 1998; Sampson & Laub, 1996). 특히 우리는 빈곤 환경에 처한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시기에 학교 적응이 극도로 취약하며(Huston, McLoyd, & Coll, 1994),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 이후의 사회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Aunola, Stattin, & Nurmi, 2000)는 연구 보고들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생활 공간인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채 또래 집단과의 상대적인 빈곤감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보호 아동의 학교 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보겠다.

일반적으로 학교 부적응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주요한 생활 사건 및 일상적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Printz et al., 1999). 즉, 가정 및 학교에서의 스트레스원이 주의집중력과 학습에의 동기를 저하시킴으로써 학교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타인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 억압된 감정의 무의식적인 표출, 약물 복용, 학교 중퇴, 비행 등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대처 유형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Rice, Herman, & Peterson, 1993). 그러나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민하영, 1999; Printz et al., 1999). 가령, 경제적 빈곤, 부모의 이혼, 가정 불화 등과 같이 아동이 통제할 수 없거나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아동들은 심각할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아동들은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적응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개인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 다르기 때문이다 (Wills, Vaccro, & Benson, 1995).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과의 관계를 증대하는 변수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20년간의 연구들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게 친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다(Lin, Ye, & Ensel, 1999). 사회적 지지는 크게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 구조적인 측면은 다시 공동체와의 유대·사회적 관계망·친밀한 개인과의 유대로, 기능적인 측면은 훨씬 더 다양하여 정보적·도구적·정서적·실질적·지각적·객관적·주관적·일상적·위기상황하에서의 지지 등의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Lin et al, 1999).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대처자원으로 기능하는 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Lin & Peek, 1999),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의 위치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 즉,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역량감(self-competence)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경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Lin et al, 1999).

학령기 아동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에는 가족, 또래, 교사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원의 통합적인 고려가 아동의 적응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가족, 또래,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함께 살펴봐왔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시설 아동들에게는 이들 세 가지 지지원의 통합적인 고려가 적합치 못하다. 더욱이 그 동안의 연구들은 부모와 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사 및 다른 의미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 1992). 한편, 개인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실제로 제공된 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제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 해도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가능하다고 지각하는 지지가 더욱 가치 있는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한미현, 1996; Anan & Barnett, 199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설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되, 아동 자신이 보육사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스트레스의 영향력과 대처 행동의 관계 탐색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 이들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역동성있게 변화하는 특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주목해 왔다. 그러나 대처 행동의 성향적 특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인성 특성으로서의 통제 소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민하영, 1999; Edelstein, Grundmann, & Mies, 2000; Hentschel, Sumbadze, & Shubladze, 2000).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사회적 지지 변수만으로는 개인의 적응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한 D'Abreu, Mullis와 Cook(1999)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내의 통제 소재는 일반적 통제감 또는 일반적 통제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제소재와 관련한 인성 특성으로 정의된다(민하영, 1999: 37). 흔히 행동의 결과에 따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내적 통제 성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에 행운이나 운명, 타인의 압력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외적 통제 성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내적 또는 외적 통제의 양극단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적인 연속선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극단의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내적 통제 성향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은 생활 전반에서의 적응력이 뛰어나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ssen & Carton, 1999; Patrick, Skinner, & Connell, 1993). Hentschel 등(2000)의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 성향이 높은 사람이 미래의 바람직한 인생 설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시기부터 내적 통제 성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내외 통제 성향은 개인이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Edelstein et al., 2000)는 견해를 고려할 때, 일반 아동들과 다른 생애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시설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이와 같이 내적 통제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으나, 내외 통제 성향과 적응, 사회적 지지와 적응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및 학교 적응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그 관계를 규명해 본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우선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에, 내적 통제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시설 보호 아동의 성별과 입소 기간에 따른 내적 통제 성향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는 이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적응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최근의 연구 관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시설 보호 아동의 학교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서의 보육사의 역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결과는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교사 및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보호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내적 통제 성향, 학교 적응은 성별과 입소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시설 보호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 성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시설 보호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 성향은 학교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빈곤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시기에 학교 적응이 특히 취약하다(Huston et al., 1994)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소속의 서울 소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생 119명(남아 58명, 여아 61명/ 5학년 34명, 6학년 85명)이었다. 2000년 2월 현재 조사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12.6세, 평균 입소 연도는 95년 2월로 평균 8세, 평균 입소 기간은 4.7년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

1)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iman(1989)이 3-7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Procidino와 Heller(1983)가 개발한 지각된 자기보고식 사회적 지지 척도(the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report Scales) 및 한미현(1996)의 아동용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문항 10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아동학 교수 2인,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5인, 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2인에게 안면타당

도를 검증받았으며,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10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7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그렇다'의 4점에서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일부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다.

2) 내적 통제 성향 척도

아동의 통제 소재 척도 구성을 위해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통제 소재 척도(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Connell(1985)의 아동의 통제력 지각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 of Control) 및 민하영(1999)의 통제 소재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내적인 통제 성향 척도는 내적인 통제 성향 문항 9 문항과 외적인 통제 성향 문항 9 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의 Cronbach's α 는 .63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응답자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다'의 4점에서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4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내적인 통제 성향 문항은 각각 4점에서 1점 처리하였으며, 외적인 통제 성향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8점에서 72점이다.

3) 학교 적응 척도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 척도를 참고로 하되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고, 일부 용어를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본 척도를 사용한 것은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80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 대상인 시설 아동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보이리라 기대되는 빈곤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빈곤환경 관련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30명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척도는 크게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취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그렇다'의 4점에서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몇 개의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20문항의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다.

3. 조사 절차

2000년 1월 28일에서 2월 2일까지 서울 소재 아동 복지시설 1곳의 5, 6학년 초등학교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용 질문지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0년 2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 1명과 연구보조자 1명이 편의 표집된 15곳의 아동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집 대상은 2000년 2월 현재 5, 6학년 초등학교 학생 1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24부를 제외한 107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 문제 분석에 앞서, 내외 통제 소재,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

〈표 1〉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내적 통제 성향	107	53.9	6.7	39-69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107	19.6	4.5	10-32
학교 적응	102	53.4	7.8	33-70

준 편차, 범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단일 집단이기 때문에 각 변인들의 평균 점수에 대한 비교 분석이 불가하지만, 〈표 1〉에서 보듯이, 각 변인들의 점수가 내적 통제 성향 39~69점,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10~32점, 학교 적응 33~70점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이라는 동질 집단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임에도 개인차가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이 타당함을 시사해준다.

1. 성별 및 입소 기간에 따른 내적 통제 성향,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에서의 차이

성별 및 입소 기간에 따른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입소 기간은 조상 대상 아동의 평균 입소 기간이 4.7년임을 감안하여 5년 미만과 5년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내적 통제 성향, 사회적 지지 지각, 학교 적응 모두 성별 및 입소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아동의 성별 및 입

〈표 2〉 성별과 입소기간에 따른 내적 통제 성향,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에서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내적인 통제성향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
성 별	남자	53.7(6.8)	22.0(3.8)	53.1(8.1)
	여자	54.2(6.7)	21.4(3.6)	53.6(7.6)
	t	-.45	.83	-.27
입소기간	5년 미만	53.3(6.5)	20.2(3.1)	52.7(7.9)
	5년 이상	55.3(6.9)	22.5(3.6)	54.5(7.6)
	t	-1.46	-3.23	-1.02

소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 대상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을 설명하는 정도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내적 통제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beta = .42, p < .001$)는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을 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 성향의 역할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 성향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

〈표 3〉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수	b	β	R ²	adjR ²	F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57	.42	.18	.17	20.00***

*** p<.001

〈표 4〉 학교 적응에 대한 내적 통제 성향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종다회귀 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1단계		2단계	
	b	β	b	β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78	.36***	.37	.18
내적 통제 성향			.49	.42***
R^2	.13		.26	
adj R^2	.12		.24	
F	13.70***		15.00***	

*** $p < .001$

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r = .36(p < .001)$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1단계 분석에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beta = .36, p < .001$)는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 적응을 12%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2단계 분석에서, 학교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2%에서 24%로 향상되었지만,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 적응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력이 없고, 내적 통제 성향($\beta = .42, p < .001$)만이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을 통제할 때, 즉 내적 통제 성향의 영향력이 배제되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전에 존재하던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간의 상관관계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의 과도기

로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인 초등학교 5, 6학년 시설 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 양자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및 내적 통제 성향과 학교 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교 적응에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들(박현선, 1998; Anan & Barnett, 1999)과 내적 통제 성향은 성별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Hentschel et al., 2000; Janssen & Carton, 1999)과 일치한다. 반면에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Anan & Barnett, 1999; Katainen, Rääkkönen, & Keltikangas-Järvinen, 1999)과 불일치하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친구·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만을 고려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시설 아동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적 지지원의 부분적인 고려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및 내적 통제 성향과 학교 적응은 입소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하지는 않지만, 시설에 입소한 기간이 오래된 아동일수록 모든 변인에 대해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아동이 지각한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 통제 성향의 높은 점수가 아동 적응 능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특성임을 고려할 때, 시설 보호 아동의 입소 기간이 길수록 적응 능력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아동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 환경이나 가정 불화를 원인으로 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입소 기간이 길어질

수족 입소 전 가정의 경제적 압력이나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Duncan & Brooks-Gunn, 2000)이 어느 정도 약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내적 통제 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존중되고 있다는 아동의 지각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문혁준, 1999; 심희옥, 1998), 높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의해 주어진 상황 및 결과에 따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Schunk, 1994) 내적 통제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적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함으로써 생활 전반에서의 현재 및 미래 적응력이 높음(백양희, 최외선, 1997; Hentschel et al., 2000)을 고려할 때, 본 결과는 시설 아동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아동의 특성, 욕구 및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능한 최상의 환경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아동 스스로가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해 높게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는 연구결과(Lin et al., 1999)를 감안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시설 아동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설 아동들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보육사가 이러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 시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인 아동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내, 신뢰감, 자애로움 등의 인성적 자질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 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은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거리 아동들(street children)의 적응 유연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만으로는 개별 아동의 적응 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D'Abreu et al., 1999)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내적 통제 성향이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Hentschel et al., 2000; Janssen & Carton, 1999)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 성향의 매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은 보육사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노력이나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 육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되,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가 시설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을 통해 학교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시설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즉, 보육사들은 개별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는 문제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기 적절한 상담 서비스 및 학교 적응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최상의 환경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해서 아동 스스로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기르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변인을 측정함에 있어서 시설 아동에게 가장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가족과 같은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보육사의 지지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있어서 또래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심희옥, 1999; Katainen et al., 1999)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의 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설 아동임을 감안한다면 시설 친구와 학교 친구의 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학교 적응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내적 통제 성향, 학교 적응을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함으로써,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설정에 연구자의 인위적인 추론이 개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내적 통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내적 통제 성향에 의해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면접 방법과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변인들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 표집의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학교 적응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보겠다.

■ 참고문헌

노숙영(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의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양희, 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유안진(1999).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문음사.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7.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an, R. M., & Barnett, D. (1999).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s between prior attachment and subsequent adjustment: A study of urban African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210-1222.

Aunola, K., Stattin, H., & Nurmi, J. (2000).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9, 289-306.

Brooks-Gunn, J., Kleanov, P., Liaw, F., & Duncan, G. (1995).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poverty upon children. In H. E. Fitzgerald, B. M. Lester, & B. Zuckerman(Eds.), *Children of Poverty-Research, Health, and Policy Issues*. NY: Garland Publishing Inc.

D'Abreu, R. C., Mullis, A. K., & Cook, L. R. (1999). The resiliency of street children in Brazil. *Adolescence*, 34, 745-751.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188-196.

- Edelstein, W., Grundmann, M., & Mies, A. (2000). The develop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beliefs in developmentally relevant contexts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lifeworlds. In W. J. Perrig & A. Grob(Eds.), *Control of human behavior, mental processes, and consciousnes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entschel, U., Sumbadze, N., & Shubladze, S. (2000). The effect of the I-E locus of control conviction on remembering and planning one's life: Individual differences in life event reports of Georgian respond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28*, 443-454.
- Huston, A. C., McLoyd, V. C., & Coll, C. G. (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275-282.
- Janssen, T. & Carton, J. S. (1999). The effects of locus of control and task difficult on procrastin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 436-442.
- Katainen, S., Räikkönen, K., & Keltikangas-Järvinen, L. (1999). Adolescent tempera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tendencie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tendencies in young adulthood.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183-207.
- Lin, N., Ye, X., & Ensel W. M.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Patrick, B., Skinner, E., & Connell, J. (1993). What motivates children's behavior and emotion? Joint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autonomy in the academic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781-791.
- Printz, B. L., Shermis, M. D., & Webb, P. M. (1999). Stress-buffering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coping: a path analysis. *Adolescence, 34*, 715-734.
- Sampson, R. J. & Laub, J. H. (1996).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Schunk, D. H. (1994). Self-regulation of self-efficacy and attributions in academic settings. In D. 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pp. 75-79). Hillsdale, NJ: Erlbaum.
- Rice, K. G., Herman, M. A., & Peterson, A. C. (1993). Coping with challenge in adolescence: A conceptual model and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6*, 235-251.
- Wills, T. A., Vaccaro, D., & Benson, G. (1995). Coping and competence in adolescent alcohol and drug use. In J. L. Wallander, L. J. Siegel et al.(Eds.), *Adolescent health problems: Behavioral perspectives, advances in pediatric psychology*. NY: Guilford Press.